

지역 소식통

고창 방문의 해 특집
KBS 열린음악회 개최

고창군이 오는 28일 고창읍성 잔디광장에서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고창군민에게 문화 공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KBS 열린음악회 고창 방문의 해 특집편에는 87주 연속 스타 트롯 여자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과 알리, 피프티피프티, 진성, 김중서, 김장훈, 김민희, 강혜정, 에스페로가 출연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열린음악회를 보기 위하여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고창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1천만 관광객 시로의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공연녹화는 28일 저녁 7시30분부터 진행되며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하나 입석 방청이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부안군은 이정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61일간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는 안전관리 강화 정책이다.

점검대상은 분야별로 건축물 8개소, 생활·여가시설 47개소, 환경·에너지시설 10개소, 교통시설 4개소, 의료시설 5개소, 소교량 등 기타 21개소이며, 특히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대비하여 관광 숙박시설, 체험시설에 대해 점검 비중을 두었다.

점검기간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점검이 이루어지며 경미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 확보 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노을대교 연계사업 주도해야”

“외국인 관광객에 희망의 땅 부안을”

심덕섭 고창군수, 관광자원·에너지 발굴 자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심덕섭 고창군수가 “노을대교 건립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서해안권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고창군청 2층 상황실에서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관광자원 및 에너지자원 발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주요 간부공무원과 베리엔바이오식품연구소,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앞서 고창군은 노을대교 건립에 앞서 연계 사업들을 구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해안도로 등



연계교통망 확충 13건 △대죽도 등 주변지역 관광 개발 10건 △해상풍력 지원시설 등 에너지 자원발굴 10건 등 총사업비 8조3000억원 상당의 사업들을 발굴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의 미래먹거리 사업들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도가 김관영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북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 관광벨트 구축 용역 과도 협력해 사업 추진동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노을대교 완성까지는 최소 5~6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부터 연계사업들을 찾고 예산 반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을대교를 비롯해 용평리조트 복합레저 시설 등 서해안권 개발을 주도해 고창의 미래먹거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통받는 군민들 도움 될 수 있도록 마련”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홍보... 2020년부터 전 군민 대상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0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연중 각종 사고 및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부안군민(주민등록 기준)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군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보장 정책 중 하나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부안군이 공제에 가입한 2020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 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천만원 한도내에서(스콜·실버존 사고 2천만원, 의사상자 1억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자는 부안군

민으로, 보장기간 내에 부안군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를 둔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탈퇴된다.

작년 총 21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19건에 대해 보험금 3,2백만원이 지급되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행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행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의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콜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가스상해 위험사망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등 20종이다.

추후 부안군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 관련 △사회재난 사망 특약까지 신설·추가하여 재난상환 보고된 사회재난(단, 감염병 제외)까지 보장할 예정이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서류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제회 청구서, 사고경명서, 신분증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6939)에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마련한 보험”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은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0개 사회단체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홈스테이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홈스테이사업은 세계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부안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와 부안군을 알리고 부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참여형 국제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국제로타리 3670지구 부안 4개 클럽,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부안지역 3개 클럽, (사)밀알중앙회 전북지구 부안지회, (사)부안군지역발전협의회,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부안군지부 등 10개 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앞으로 다른 사회단체가 홈스테이사업에 희망하는 경우 추가로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사회단



체별로 홈스테이 희망가정을 모집하고 선정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료로 숙박 및 문화관광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홈스테이사업 홍보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10개 사회단체와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세계잼버리 홈스테이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식에 참여해주신 사회단체장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희망의 땅 부안 새만금의 이미지가 깊게 새겨지고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영유아 간식 우리밀 제품 무상 공급

정읍시가 지역 내 영유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생산 밀소비 활성화를 앞장서고 있다.

시는 ‘우리 밀 소비 촉진 지원사업’ 일환으로 14일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46개소에 우리 밀 제품으로 만든 3,500원 상당의 부침가루, 국수, 라면 등을 무상 공급했다.

이번 지원은 원아수 50명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유치원은 6월까지 2차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 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은 우리

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 밀 제품 수요를 늘리고 유아 간식을 우리 밀 제품으로 대체 급식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밀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우리 밀 제품을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을 심어준다는 복안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0회 부안마실축제, 안전 개최 현장 보고회

부안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부안읍 매창공원을 비롯한 부안 전역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부안마실축제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지난 13일 현장 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중문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계획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축제장 곳곳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축제장 주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축제는 펜데믹 이후 4년 만에 찾아온 온전한 대면축



제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전 역량을 동원해 안전한 축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안전 메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정밀해 축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지역 봉사단체, 장애인복지 증진 ‘맞손’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명석)과 정읍 VIP 봉사단(단장 김민복), 한마음청년회(회장 김용진)는 14일 지역사회 봉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세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사회공헌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력 분야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 △프로그램 제



안 및 홍보 등이다. 협약에 따라 복지관은 지역사회 우수 봉사단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

공과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VIP 봉사단과 한마음청년회는 복지관의 전속 파트너가 되어 지역 내 장애인에게 유·무형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VIP 봉사단과 한마음청년회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